

미야자와 겐지의 감염증 문학 『질중』을 읽다

ZHANG YONGJIAO (지바대학)

1. 『질중』의 서지 정보

『질중』은 미야자와 겐지가 말년에 쓴 유고이다. 『(신)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 제5권에 수록된 『질중』은 생전에 공표된 적이 없는 문어시, 구어시, 단편적인 중얼거림 등, 총 30편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¹⁾. 이들 텍스트는 「질중」이라고 적힌 표지에 이어져 첩해져 있으며 여러 종류의 종이에 적혀 있다. 표지 라벨에 ‘8.1928-1930’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질중』은 미야자와 겐지가 1928년 8월 이후 폐질환에 걸려 요양하던 시기부터 1930년 말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에서는 『질중』 30편 중에서 많이 언급·인용되는 「눈으로 말하다」에 초점을 맞춘다. 「눈으로 말하다」는 1946년 10월에 발행된 잡지 『군상(群像)』 창간호의 창작란에 있는 시·칼럼에 ‘유고’로 처음으로 세상에 공표되었다²⁾. 전시 중에 널리 읽힌 「비에도 지지 않고」의 수용 방식과 비교 검토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염증 문학으로서의 「눈으로 말하다」를 다시 읽는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미야자와 겐지의 감염증 체험

미야자와 겐지와 친분이 있던 하나마키공립병원 원장인 사토 다카후사의 회상에 따르면, 미야자와 겐지는 1928년 여름에 결핵성 폐렴 진단을 받았고 1931년에 일단 나았지만, 그해 가을에 도쿄로 올라간 후 병이 재발해, 1933년 9월 21일에 감염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1930년 4월 4일에 미야자와 겐지는 “오르간주법 별편으로 보냈습니다. 병에 걸린 이후 손도 대지 않았고, 병도 결국 결핵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충분히 소독했으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십시오”³⁾라고 편지에 기술해, 감염증 환자로서의 자각과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1932년 6월 22일의 서한에서는 “다음으로 제가 작년 뵈었던 여름, 기관지염과 폐렴·늑막염을 앓아 하나마키에 있는 본가로 옮겨,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재작년보다 작년은 점점 회복했습니다”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병질은 잘 모르지만 폐침, 전흉 기관지염, 늑막의 오래된 상처, 작년 가을은 폐렴, 결핵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중략) 어찌되었든 결핵성은 오래 싸울 각오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⁵⁾라고 고백하고 있어, 미야자와 겐지가 결핵이환이라는 현실과 의사의 무력함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시하의 「비에도 지지 않고」와 『질중』의 행방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발표중인 본문인용은 미야자와 겐지 『질중』, 『(신)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 제5권 시IV 본문편』(치쿠마쇼보, 1995, 8.)에 의한다. 인용사료는 구한자에서 신한자로 모두 바꾸었다. 이 텍스트군은 ‘폐렴시편’, ‘임중시편’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질중』 시편으로 모아져 읽히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의 치쿠마판 전집이 출판되면서부터이다.

2) 다카하시 기요지편 『군상』 제1권 제1호, 대일본웅변회고단샤, 1946, 10.

3) 미야자와 겐지, 「1930년 4월 4일 사와자토 다케시 앞 봉서」, 『(신)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 제15권 서한 본문편』, 치쿠마쇼보, 1995, 12, p.281.

4) 미야자와 겐지, 「1932년 6월 22일 나카다테 부자에몬 앞 초서」, 『(신)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 제15권 서한 본문편』, 치쿠마쇼보, 1995, 12, p.407.

5) 미야자와 겐지, 「1932년 10월 5일 모리 사이치 앞 봉서」, 『(신)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 제15권 서한 본문편』, 치쿠마쇼보, 1995, 12, p.415.

결핵이환 기간 중에, 미야자와 겐지는 「비에도 지지 않고」와 「질증」을 수첩·종이에 써 놓았다. 모두 생전에 발표된 적이 없는 텍스트이지만, 「비에도 지지 않고」는 미야자와 겐지의 남동생인 미야자와 세이로쿠가 정리하면서 1934년 9월 21일 『이와테일보』에 「유작(마지막 노트에서) 고(故) 미야자와 겐지」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그 후 「비에도 지지 않고」는 미야자와 겐지의 강한 정신성의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한편,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질증』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표된 것은, 전후 1946년에 창간된 『군상』과 1946년 일본독서조합판 「미야자와 겐지 문고」의 잡지에서였다. 여기서 10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군상』에 게재된 「눈으로 말하다」와 「바람이 밖에서 부르고 있다」의 말미에 붙여진 미야자와 세이로쿠가 쓴 부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눈으로 말하다」는 미야자와 겐지 전집이 완결된 1년 후에, 창고 밑의 종이 속에서 발견되었다. “1933년 봄, 형이 갑자기 병상에서 심한 객혈을 했을 때, 프록코트를 벗을 틈도 없이 달려온 사토 다카후사 선생님도, 가족들도, 새파랗게 질려 당황했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박사님의 말밖에 지금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쓰여 있다.

사토 다카후사의 증언에 따르면, 같은 창고 밑의 종이 속에서 발견된 수십 편의 글은, 하나마키가 공습을 당해 미야자와 겐지의 집이 전소했을 때, 미야자와 세이로쿠가 방공호에 옮겨 넣어 소실을 면한 것이다⁶⁾. 전시하의 슬로건에 맞는 ‘지지 않는다’는 정신은 크게 선전되어, 1930년대 전후에 센토손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되어 중국에도 확산됐다고 한다. 반면 「눈으로 말하다」 등의 텍스트는 전쟁 중에 잠든 채로 있었다.

후쿠다 마히토는 근대화·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과 집중이 결핵 만연의 토양을 마련했다고 제기하며, 결핵에 관련된 「천재의 신화」와 「로맨틱한 이미지」를 바꿔 읽을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⁷⁾. 후쿠다가 논하는 것처럼, 백년전 감염증의 만연은 전쟁이나 근대화와 깊게 결부되어 있다. 이환·비이환 모두 국민의 신체가 국가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또 미야자와 겐지의 원고 「비에도 지지 않고」의 행방은 전쟁의 영향으로 국경을 넘었고, 「눈으로 말하다」는 공습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전쟁 시기에 서적 자체는 국민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관리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4. 역사적 콘텍스트에 있어서의 「질증」

『질증』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오자와 도시로⁸⁾는 “주정적인 영탄조가 운율의 중심”이 되었고, 미야자와 겐지는 “영탄적 서정 시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으며, “많은 비평가들이 퇴보라고 생각해 문어시를 경시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나카치 아야는 「눈으로 말하다」는 겐지가 빈사라는 상태에서 “다른 공간의 존재를 믿고 환생을 믿는 불교적 세계인식을 담은 작품이다”라고 해석했다⁹⁾. 더욱이 오마카 마코토는 “그 무렵의 시 잡지에는 때때로 미야자와 겐지의 미간행 시편이 발표되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일까’하고 생각했고, 겐지의 다산함(多産)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세계 내리쳐지고 있다”(탁탁탁탁)면서, 「눈으로 말하다」를 “깊은 사적인 체험의 모티브에서 출발

6) 사토 다카후사, 『미야자와 겐지 - 맨얼굴의 나의 벗 최신판』, 후잔보기획, 2012, 3, p.274.

7) 후쿠다 마사토, 『결핵의 문화사 -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병의 이미지』, 나고야대학출판회, 1995.2.

8) 오자와 도시로, 「『질증』에서 문어시로」, 『국문학 해석과 교재의 연구』, 제23권 2호, 가쿠토샤, 1978, 2, p.89.

9) 나카치 아야, 「『질증』 -그 구어시를 두고-」, 『국문학 해석과 감상』, 제60권 9호, 시분도, 1995, 9, p.133.

했다”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⁰⁾. 선행론 결핵 환자의 인생 체험과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심경에 입각하여, 본론에서는 그 텍스트 세부에서 비춰지는 시대의 특징을 고찰해보고 싶다.

한편, 「눈으로 말하다」에 “당신은 협회에 다녀오시는건지”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상정된 인물은 하나마키공립병원의 원장인 사토 다카후사이다. 사토가 쓴 미야자와 토시¹¹⁾와 미야자와 겐지의 「질병고」에는 “당시 의학으로는 청진과 타진밖에 없는 시대로, 엑스레이도 만토 반응도 적혈구 침강속도 측정도 불완전”¹²⁾하여 발진티푸스와 인플루엔자 결핵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오진도 있었다고 한다. 이어서 「눈으로 말하다」에는 “혼이 반쯤 빠져 나간 때문인지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의학으로는 확실히 병의 원인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미야자와 겐지의 어머니는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대신, 점을 보러 가거나 잉어의 생담을 미야자와 겐지에게 먹이기도 했다.

『질중』의 마지막 한 편 말미에 “귀명묘법 연화경/생도 묘법의 생이며/죽음도 묘법의 죽음이며/이번 생은 성불하기까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종교에 구원을 청하는 화자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미야자와 겐지의 결핵 치료 체험이나 창작 텍스트에 공통되는 이념의 하나로서 과학이나 의학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종교나 주술에 의지해, ‘병’ 그 자체도 신비화되는 프로세스가 보이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후세 사람들에게는 단명한 천재 문인의 ‘죽음’이라는 강한 사건만 인상에 남았을 뿐,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공포나 불안, 그 시국성은 묻지 않는다.

미야자와 겐지처럼 결핵으로 숨진 이와테 출신의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1886~1912년)의 『한 줌의 모래』 속의 노래 “폐병에 걸려/곧 죽을 남자도 있네”, “해마다 폐병이 늘어 간다”¹³⁾에서도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으며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에 「결핵예방법」이 공포되었고, 제2조 제1항에는 “시체의 경우 시체가 있는 곳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명령하는 장소에 소독 및 기타 예방방법을 지시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1937년에 「결핵예방법 중 개정 법률」이 나온 뒤, 결핵의 만연을 억제하고 국민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 4월에 「보건소법도」 나왔다. 전시 하에 들어가자, 보건과 방역은 직접적으로 ‘인적 전력’, ‘황군 장병의 강건’, ‘세균전’과 이어지게 되었고, 예방과 치료는 국가/사회/전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1933년 1월에 미야자와 겐지는 만주국 금주 헌병대의 이토 요조에게 보내는 연하장에 “무사와 행운을 기원합니다”라고 썼으며, 같은 해 8월 이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국가를 위해 힘쓰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어, 병약한 ‘내’가 출정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다¹⁴⁾. 이 서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야자와 겐지가 살았던 시대의 결핵과 치료 체계는 국가 인적 전력과 직결됐고, 국민의 신체는 군대의 자원으로서 엄격하게 관리됐다.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중』을 읽다

문학 텍스트는 역사 현장에 다가가는 사적인 기록인 동시에, 불가피하게 공적인 조직의 존재 방식에도 구속된다. 문학 텍스트가 가진 ‘힘’은, 정치와 결합될 때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의 사상을 유도하고 선동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도 될 수 있다. 전시하의 「비에도 지지

10) 오마카 마코토, 「『질중』 시편과 『문어시교』와」, 『쇼와시 역사』, 시초샤, 1977, 4.

11) 미야자와 토시(1898~1922년), 미야자와 겐지의 여동생이다. 결핵으로 24세에 숨졌다. 미야자와 겐지의 창작에서 ‘토시’, ‘토시코’로 자주 언급된다.

12) 사토 다카후사, 『미야자와 겐지 - 맨얼굴의 나의 벗 최신판』, 후잔보기획, 2012, 3, pp.267~268.

13) 이시카와 다쿠보쿠, 『한 줌의 모래』, 도운도서점, 1910, 12, p.114, p.122.

14) 미야자와 겐지, 「1933년 1월 1일 이토 요조 앞 엽서」, 「1933년 8월 30일 이토 요조 앞 봉서」, 『(신)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 제15권 서한 본문편』, 치쿠마쇼보, 1995, 12, p.425, p.455.

않고」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가마에 다이키¹⁵⁾가 논하는 것처럼, 멸사봉공이라는 국민 정신 총동원의 슬로건에 ‘징용’되고 있었다. 「비에도 지지 않고」에서 화자인 ‘내’가 되고 싶은 인간상에 대해서, 텍스트 안은 애매한 상태이지만, 전시 하에서 선전될 때 ‘근로·헌신·희생·신성’ 등의 사상 내용이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눈으로 말하다」의 화자가 “당신이 보면 매우 참담한 풍경이겠지만/나에게 보이는 것은/역시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맑고 투명한 바람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쉽게 남에게 좌우되지 않는 자신의 의사와 쉽게 권력 측에 해석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것 같은 의지도 명백히 나타난 것은 아닐까.

전시하의 문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반성하면서, 사카구치 안고¹⁶⁾는 고바야시 히데오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고, 미야자와 겐지의 아직 생생하게 울리는 메모¹⁷⁾의 『질중』의 「눈으로 말하다」를 문학의 「전본」으로 높이 평가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독을 맞은 놈, 벌을 받은 놈’만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작가 이사가 고타로는 소설 『마왕』¹⁸⁾ 속에 「비에도 지지 않고」가 독자에게 부여한 ‘훌륭한 인간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 또 훌륭한 작가 이미지 형성 과정의 ‘멋대로인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이사가는 소설 속에서 「눈으로 말하다」의 내용 “안 되겠지요/멈추지 않는군요/샘 솟듯이 가래가 끓어올라/저녁부터 불면과 객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를 인용하며, 미야자와 겐지의 이미지의 ‘강함’을 퇴색시키면서 단지 그 자리의 살아가는 상태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카구치가 말한 「전본」의 의미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풍경 이외에, 독과 벌을 받은 인간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사상의 경지가 아닐까. 죽음으로 향하는 때에, 화자는 타인의 사상에 좌우되지 않는 투철함을 나타낸다. 텍스트 내용도 독자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일체의 메타포나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나’의 눈으로 본 것, 보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다.

헨미요¹⁹⁾는 3·11 지진 재해 후에, 필요한 말은 ‘힘내라·부흥·단결·지지 않는 정신…」과 같은 슬로건적인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말로 “당신이 보면 매우 참담한 풍경이겠지만/나에게 보이는 것은/역시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맑고 투명한 바람뿐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눈으로 말하다」의 내용을 다시 제기했다. 감염환자이자 문학자인 미야자와 겐지의 「눈으로 말하다」에서는 ‘너’의 견해보다도 ‘나’의 견해를 가지고, 객혈하면서도 ‘푸른 하늘’과 ‘바람’만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헨미요가 제기한 것처럼, 공정·진실·평등을 추구하면서도 재해 속의 사람들은 갈망적으로 ‘말’을 원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중』에 쓰인 말은, 동조 압력과 자기 억압 속에 살아가는 코로나 난민에게 타인(너)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 더 깊은 자성(나로부터)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살아가는 것, 생명체로서 세계와 접속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지 않을까.

(번역책임자:김예진)

15) 가마에 다이키, 「징용된 <미야자와 겐지> -총동원체제 하의 『비에도 지지 않고』와 문학적 가치의 소재」, 『일본근대문학』 제92집, 일본근대문학회, 2015, 5.

16) 사카구치 안고, 「교조의 문학 - 고바야시 히데오론」, 『근대 일본사상대계29 고바야시 히데오집』, 요시모토 다카아키편, 1977, 1, 치쿠마쇼보, pp.409~413.

17) 오히라 유지, 「전후를 사는 자의 눈 -전후 비평 속의 사카구치 안고와 고바야시 히데오-」, 『문학적 기억·1940년 전후 -쇼와 문학과 전쟁의 기억』, 간린쇼보, 2006, 11, p.293.

18) 이사가 고타로의 『마왕』, 고단샤, 2008, 9, p.117.

19) 헨미요, 『잔해 속에서 말을 나의 <사자(死者)>에게』, 2012, 1, NHK출판, pp.20~21.